



16년

정읍시, 안전 행복도시건설 '총력'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음 3월 2일)

제27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미얀마 민주주의 봄 반드시 찾아올 것’

### 전북도, 유학생 돕기위해 ‘1청원 1티셔츠’ 운동 전개 시·군 등 동참 유도... 세 손가락 경례로 민주화 지지

전북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의 뜻과 어려움에 처한 도내 미얀마 유학생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대표 3명, 행북한아시아여성관 대표를 만나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사랑 1청원 1티셔츠 구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미얀마 유학생들을 맞이한 송지사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의사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지사는 지난 1일 협의회 명의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얀마 사랑 티셔츠는 재한미얀마 전복학생회와 행복한 아시아가 공동

으로 제작했다.

도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의 뜻을 표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내 미얀마 유학생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구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미얀마 돕기 티셔츠 구매 운동은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를 비롯한 전북도청노동조합(위원장 송상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북도청을 비롯해 14개 시·군도 출연기관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도 미얀마 유학생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티셔츠 구매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재학중인 대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유예를 협조 요청했으며, 대학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생계가 어려운 미얀마 도내 거주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 상담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단체에서 진행되는 성금

모금 행사에도 청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할 예정이다.

미얀마 유학생 대표 A씨는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게 지지하고 힘을 보태주기로 한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얀마 사랑 티셔츠 구매 운동은 전북 미얀마 유학생뿐 아니라 본국에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 “미얀마에서 군부의 총탄에 어린이들까지 희생됐다는 참혹한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이에 맞서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국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미얀마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은 834명이며, 외국인노동자 674명, 유학생 110명, 결혼이민자 8명 등이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대표 3명 등 관계자들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협업 본격화

### 도, SK 투자와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전담 TF 운영 투자유치·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에 맞는 역할 부여

전북도가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전담 TF 회의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SK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SK 투자촉진,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도는 TF를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유치, 창업클러스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R&D 특구지정 등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금융과 등 7개 부서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추진 동향을 공유하는 등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SK 데이터센터 조성을 기회로 삼아 새만금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135,0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데이터 집적단지 기반 조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유치, 지능형 전력공급망 구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장비, 데이터 유통 등)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도내에 부가가치 창출, 장비유치 및 보수 등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 수행(3월~8월)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국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TF 운영성과를 높여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궁금한 새만금 정책 언제든 물어보세요’

### 새만금청, 국민신청실명제 기간 무제한 연중 상시 운영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로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 담당자와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혁신의 하나이다.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새만금청 누리집(www.samangeu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는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한 과제는 새만금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 전주시, 도로교통법 시행 따라 내달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으로 상향

전주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

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8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김윤상 기자

